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충원 김효창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Hofstede의 연구 중 문화차원의 하나인 불확실성 회피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들을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 변인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을 먼저 측정하고, 불확실성 회피는 불확실성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체면민감성과 사회적 불안은 불확실성 회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불확실성 회피와 무관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을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만 설명한 Hofstede의 연구가 갖는 순환적 한계를 보완하여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명확한 심리적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 불확실성 회피,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 문화차원

과거에 비해 사회가 매우 복잡해졌다.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나 사회현상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복잡하게 만든다(김재문, 2000). 과거에는 서로 관련이 없던 구성요소들이 현재에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단순했던 원인들이 현재에는 다변적인 원인으로 복잡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단편적인 예로, 과거에는 주거지역이 교육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재에는 소위 강남 8학군이라는 주거지역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상 관측에 있어서도 엘니뇨(El-Niño)현상¹⁾이나 온실 효과, 황사현상 등은 사회와 산업,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이러한 현상들은 낱짜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 관측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는 과거 사회에 비해 원인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불확실성의 증대는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증가시켰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연

이충원, 김효창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이충원,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820-5124,

E-mail : smartwony@naver.com

1)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루 해류 속에 갑자기 이상 난수가 침입하여 적도 부근의 해면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

구를 수행해 왔다.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도 불확실성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양자역학 분야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가 중심이슈가 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예측하고자, 정치 분야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이나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심리학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학의 특성상 불확실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심리학 분야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Sherif(1935)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동조(conformity) 현상에 대한 연구, Kahneman과 Tversky(1979)의 Heuristic에 대한 연구, Hofstede(1995)의 문화에 따른 불확실성 회피-수용 차원에 대한 연구 등이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Sherif(1935)의 연구는 동조에 대한 관심과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연구의 주요 변인이 되지 못했고, Kahneman 등(1979)의 연구는 인간의 선택에 있어 확률적인 판단에서의 오류와 그 판단에 대한 인지적인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정작 사회·문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문화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는 Hofstede(1995)의 연구가 유일하다. Hofstede는 불확실성 회피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문화와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으며, 이를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추론하였다.

Hofstede(1980)는 불확실성 회피를 “불확실과 모호함에 대해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 회피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회피 및 대응정도를 말하며, 비체계적인 상황보다 체계적인 상황을 선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한은경, 2002). Hofstede(1995)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IBM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 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문화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합주의, 남성성-여성성,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강에서 약까지)차원의 4가지 차원²⁾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였다.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IBM 연구과제의 네 번째 차원이었다(Hofstede, 1995).

2) 현재 Hofstede의 문화차원은 Long-and Short-Term-Orientation 차원이 추가되어져, 5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Hofstede에 따르면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서의 국가 차이는 원래 권력거리의 부산물로 부터 발견되었다고 한다(Hofstede, 1995). Hofstede는 세계의 IBM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규칙 지향성,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 세 변인들의 간의 상관관계 높았고 각 국가 간의 차이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ofstede(1995)는 한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직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해석하였다. Hofstede는 이러한 세 변인의 원인을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을 때 어떤 특정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안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측정된 결과의 평균점수(Mean Score)를 통해 국가 간의 점수를 지수화 하였다(Hofstede, 1995).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회피 지수(UAI : Uncertainty Avoidance Index)이다. UAI가 높은 국가나 문화는 표현성이 높고, 불안수준이 높으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며, 또한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강한 나라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덜 행복하게 느낀다고 주장하였다(Hofstede, 1995, 2005). 이 외에도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에서는 정형화된 삶을 위해 규칙이나 형식을 중시하며(Hofstede, 1995; Mooij & Hofstede, 2002), 개인이나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변화와 혁신성이 높지 평가받지 못한다(Rhyne, Teagarden & Panhuyzen, 2002).

한국의 UAI는 85점으로 측정된 74개국 중에서 23-25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fstede, 2005). Hofstede가 1995년까지 측정한 국가는 53개국이었으며, 그 시점에서의 한국 UAI 역시 85점 이었고, 이는 53개국 중에서 16-17위에 해당하는 위치였다(Hofstede, 1995). 이런 위치의 변화는 이전에 측정되었던 지수에 다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³⁾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에 있어서는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 상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

3) 사실 이러한 부분도 Hofstede의 차원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의 하나이다. 측정국가 수가 달라짐에 따라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그에 따른 설명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간의 차이연구로서 추론된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이 아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Hofstede(1995)가 주장한 불확실성 회피의 특성들이 한국사회와 문화를 잘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지만, 어쨌든 타 국가나 문화에 비해 불확실성 회피가 높다는 측면은 불확실성이 강한 문화의 특성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유발시킨다. 이와 같은 가정은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검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Hofstede(1995)가 사용한 비교·문화적 연구 방법으로는 검증이 더욱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의 어려움은 불확실성 회피와 한국의 문화심리학적 변인들 간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심리학적 변인들이 불확실성 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Hofstede(1995)가 주장한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적절한 문화의 한 차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그렇다면, 한국 구성원들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들이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을 유발시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Hofstede(1995)가 측정 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분야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체면, 눈치, 부자유친성정, 우리성 등 다양한 문화 심리적 특성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었다(최상진, 1998, 2000). 이런 문화 심리적 개념들은 Hofstede(1995)가 언급한 문화 차원 중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의 주요한 설명 변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체면민감성의 발현 양상은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문화이다. 이러한 특성은 불확실성의 증가가 곧바로 체면손상의 위협성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체면손상의 위협성이 증대되면 가급적 행위는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체면민감성과 상반되는 심리적 특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어주는 많은 심리적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이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민감성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크다면, 상황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안 또한 불확실성 회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Hofstede(1995, 2005)는 불안을 불확실성 회피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체면과 불확실성 회피

체면은 몸을 뜻하는 체(體)와 얼굴을 뜻하는 면(面)의 합성어이다. 이 한자어 자체가 뜻하는 것처럼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의되어진다(우리말 큰사전, 1994). 이 정의는 체면을 지켜야만 남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체면의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임태섭, 199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최상진, 유승엽, 1992; 최상진, 김기범, 1998; 한준오, 2003). 도리에 어긋남의 판단기준은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도덕·가치 틀 속에서 판단되어지며 한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김양희, 1994; 박기순, 1994).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틀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면 떳떳하지 못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부끄러움으로 연결되어진다(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 생기는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과 창피성 부끄러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2000). 자괴성 부끄러움은 여자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슬픈 얼굴을 보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에 해당되는 자신의 외적 행동을 스스로 보고 그러한 행동이 도리에 어긋났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내적 품성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생기는 감정의 한 가지 형태로 일종의 ‘자기 부끄러움’이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2000). 창피성 부끄러움은 남에게 비춰진 자신을 보고 느끼는 부끄러움으로 흔히 남에게 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도리에 어긋났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움으로 일종의 ‘남부끄러움’이다(최상진, 김기범, 1998; 최상진, 2000).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이 없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보다 남이 보는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더욱 부끄럽게 느끼고 당황해한다. 따라서 창피성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보다 그 강도와 선명도 및 경험 빈도 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심리 기제 면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부끄러움 간에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또한 이 두 가지 부끄러움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최상진, 2000). 또한 부끄러움은 단순한 자기 인품상의 하자 인식에 덧붙여, 그러한 하자가 상대에게 노출되는데서 오는 당황감과 이와 연계되어서 결과 될 수 있는 자기 이미지 손상, 대인관계상의 불이익등과 같은 부정적 기대 복합을 함축한다(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민감성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다. 최상진(2000)은 체면민감성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다고거나 관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수행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민감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김경오, 2002).

체면민감성의 이러한 특성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의사결정이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Hofstede(1995)가 주장한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서 체면민감성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애매모호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에 떳떳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를 대변해 주는 문화적 심리특성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면민감성은 문화적인 심리 특성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이므로 불확실성 회피를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불확실성 회피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한규석, 2002).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의 중요성, 유능함, 그리고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서 형성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려는 자기평가’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정과 부모관련 자아 그리고 학업 자아로 구분하고, 이들의 총합을 자아존중감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을 감정적인 요소로서 간주한 학자도 있다. Harter(1993)는 ‘자아존중감은 전형적으로 평가적 차원을 거쳐 개인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평가보다는 감정이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Cast와 Burke(2002)는 자아존중감을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자아존중감, 동기로서의 자아존중감, 완충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어떠한 행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자아존중감은 어떤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아존중감이다. 동기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사람들마다 자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동기로서의 자아존중감으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아존중감이다. 마지막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정보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현실에 잘 적응하며, 높은 성취 및 정신건강을 보이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ubois & Flay; 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mdt, & Schimel, 2004; Taylor & Brown, 1988). 여기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유능감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아거부, 자아불만족 및 자기 비난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다(Buss,

1995; Salmivalli, 2001).

Li-Ping과 Baldwin(1989)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행을 했을 때 자신들의 힘, 능력, 좋은 자질 등을 강조하고, 그들 자신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 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정우, 한규석, 2005), 이러한 경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Dunning(1995)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예, 창의성이나 지능)을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의하기가 애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서, 얼마든지 이들 영역에서 자신을 좋게 평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 Dunning(1995)의 주장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좋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면 정보가 거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판단이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많은 가치 부여와 더 좋은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특성들은 불확실한 상황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회피

Hofstede(1995, 2005)가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회적 불안 또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주요변인일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해서 Leary 등(1982, 1995)은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적 평가가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불안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압박해 있고 잠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인지-정서적 반응이다(김남재, 1999; 진승범, 1995). 불안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실제나 가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간 평가의 출현이나 평가를 예견(豫見)함으로써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 불안과 달리, 사회적 불안은 대인간 평가(interpersonal evaluation)가 실재하거나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불안이다. 다른 사람들의 지각과 평가가 자신의 삶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인상관리나 자기제시를 중요하게 여긴다(Leary & Kowalski, 1990; Schlenker & Weigold, 1992).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타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평가하느냐, 대우하느냐에 영향을 줌으로 타인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Leary & Kowalski, 1990). 즉,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결과를 피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대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타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을 좋게 하려고 행동하게 된다(Goffman, 1959; Arkin, Appelman, & Buger, 1980).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대인간 평가의 예견이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불안과 구별된다(Schlenker & Leary, 1982). Schlenker와 Leary(1982)는 기존의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을 통합적으로 사회적 불안으로 명명하고 각각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접근을 하나의 틀로 묶는 시도를 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전제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사회적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Leary, 1983; Schlenker & Leary, 1982).

특히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 상황에서 회피경향을 보이며,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게 비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일반화된 인상기대를 갖고 있다(Leary, Kowalski, & Campbell, 1988). 또한 Beidel 등(1985)은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높은 생리적 각성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및 위협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을 들었다. 또한, 사회적 회피 반응은 집단 창안과 같은 공동 과제 수행에 개인적으로 열등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 있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 공동 과제 수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Comacho & Paulos, 1995). 또한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불안은 대인공포증이나 심각한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도 있다(Curran, 1977).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특성들은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여지가 많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상황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더 많은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김재문, 2004). Vonk(1999)는 자신의 수행이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서 사회적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자기 방어적인 제시 방법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며 자신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Hofstede(1995)의 연구에서도 불확실성 회피는 불안과 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ofstede(1995)의 주장은 불확실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불안, 즉 불확실성 상황의 부산물로서의 불안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사회적 불안은 불확실한 상황의 부산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 차이점은 개념을 설명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Hofstede(1995)의 연구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그 자체가 회피의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불안의 특성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게 만드는 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를 설명하는 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가설

지금까지 Hofstede(1995)의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의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Hofstede(1995, 2005)의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가 주장하는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은 단순히 가설적 구성체(explanatory fiction)일 뿐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국가나 문화에 대한 편견 조장이나 이 분야의 과학적 규명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과학에 근거한 실제 원인과 연구자에 의해 추론된 원인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들이 많은 기업이나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적 관점들은 다른 문화나 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Hofstede(1995, 2005)의 연구는 비교·문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나 문화 간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으나, 차이에 대한 심리적인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문화 심리학적 관점의 특성은 문화와 문화 속의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특성을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개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심리적 특성(예 : 체면민감성 등)들을 통해 불확실성 회피의 원인을 탐색한다면,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원인들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미세한 수준(micro level)의 연구도 기존의 Hofstede(1995, 2005) 연구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문화 심리학적 연구는 국가나 문화의 평균 점수(mean score)를 가지고 그 차이점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방법(Method)은 너무 광대한 수준(Macro level)의 관점에서 차이점이 규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점의 세부적인(specific) 부분을 규명할 수 없다. 불확실성 회피의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상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과연 어떤 변인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고 수용하게 만드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2 :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3 :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확실성 회피 경향성이 증가할 것이다.

방 법

조사 대상자

서울 소재 C대학교 학생 29명과 충청도 소재 N대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후, 불확실성 상황이 조작된 실험 장면에서 노출시켜 그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순서는 실험이 개인적인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에 설문지 조사 후, 지능측정 실험

이라고 인지시킨 후 진행되었다.

도구 및 절차

체면민감성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1999)이 개발한 본 척도는 한국인들의 체면의식에 관한 것으로,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도덕성 그리고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고 있다. 본 척도는 15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는 각 문항이 모두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한미정, 2001). Rosenberg(1965)가 개발한 GSES(Global Self-Esteem Scale)를 국내에서 전병제(1974)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이 척도에 대한 표준화,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자기 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본 척도는 총 10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이다.

사회적 불안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과 Friend(1969)의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 SADS)를 이정운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이다. 본 척도는 28문항, 7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방에 낯선 사람들이 꽂 차 있어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정운 등(1997)의 한국판 SADS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 반분신뢰도는 .94이었으며 4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 상황은 실험적으로 처치되었다. 피험자들이 실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앞서 실시한 질문지와는 무관한 지능을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소개하였다.

실험은 실험 참가자가 실험협조자와 같이 10문제의 O, X 퀴즈를 푸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참가자는 항상 실험협조자가 답하고 난 이후에 답할 수 있도록 처치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는 결국 실험협조자와 같은 답이나 혹은 다른 답 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로 들어오면 다른 실험 참가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 실험 참가자는 대학생 평균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된다. 사실 이 참가자는 사전에 협의된 실험협조자이다. 실험협조자와 참가자에게는 각각 10,000원씩이(천원짜리 지폐 10장) 주어지며, 돈을 많이 획득할수록 지능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게임의 규칙은 표 1과 같다. 먼저, 정답을 말한 사람이 오답을 말한 사람에게서 2,000원을 빼앗고, 둘 다 같은 답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1,000원씩을 잃게 된다. 또한 실험참가자가 확실하게 불확실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찬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찬스는 성공 시에는 4,000원을 획득하고 실패 시에는 4,000원을 잃게 된다. 실험 참가자는 문제의 답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 찬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 후, 퀴즈에 응답하는 순서를 정하게 된다.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추첨을 통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우선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10문제 모두 우선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추첨을 시행하지만 추첨카드에는 전부 ‘나중’이라고 적혀진 카드만 있을 뿐이다. 실험 참가자와 실험협조자는 모두 ‘나중’이라는 카드를 뽑지만, 사전에 실험협조자와 모의하여 실험협조자는 항상 ‘우선’을 뽑았다고 말한다. 결국 실험 참가자는 항상 나중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퀴즈 문제는 본 실험이 지능을 측정하는 실험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수준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피험자와 실험협조자의 정답률은 50%로 설정하였으며, 사전에 실

표 1. 실험의 규칙 단위: 원

	일반적 상황		찬스 상황	
	같은 답	다른 답	정답	오답
실험 참가자	-1,000	2,000 또는 2,000	4,000	-4,000
실험협조자	-1,000	-2,000 또는 2,000		

협조자와 교육을 통해 동일한 순서로 응답토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되었던 문제들은 대표적으로, '[x]는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일 때 $[\sqrt{100}] + [\sqrt{101}] + \dots + [\sqrt{200}]$ 의 값을 5로 나눈 나머지는 4이다 (암산15초)', '(5000-1)*(5000-2)*(5000-3)*...*(5000-4999)를 55로 나눈 나머지는 2다(암산 15초)'와 같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었다. 문제의 난이도는 사전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문제들을 사용하였지만, 혹시라도 실험 참가자가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와 실험협조자에게 자신의 답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찬스는 성공 시에는 4,000원의 이득이 주어지고, 실패 시에는 4,000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세부규칙에 대한 설명 이후에 퀴즈게임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대한 기록은 항상 나중에 말하는 실험 참가자의 반응이 실험협조자의 반응을 따라 가느냐(회피), 따라 가지 않느냐를 기록하였다.

실험 장면에서 실험 참가자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당황스러워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반드시 답을 말해야 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든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험 참가자가 실험협조자와 같은 답을 선택하는 것은 불확실성 회피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실험 협조자와 같은 답을 선택하게 되면 둘 다 1000원씩 잃는 상황이 되고 이는 곧 둘 다 손해 보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진다. 이 선택은 돈을 많이 획득하는데 실험 참가자 자신이나 실험 협조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50%의 확률 상황에서 선택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결과(2,000원을 잃는 상황)에 대한 회피로 같은 답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답을 선택하게 되면 100% 둘 다 1,000원씩을 잃는 상황이 되며, 이는 결과 예측이 확실한 상황이다. 즉 불확실한

상황(2,000원을 획득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확실한 상황(둘 다 1,000원을 잃는 상황)을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 소재 C대학교 대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본 실험과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단지 이 설문지에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당신이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돈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한 반응은 100%의 사람들이 2,000원을 잃을 수도 있고 2,000원을 획득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선택하였다. 물론, 사전조사는 본 실험과 매우 다른 상황에서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같이 1,000원을 잃는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서는 같이 돈을 잃는 상황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같은 답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답을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선택을 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총 10문제 중에서 실험협조자의 반응을 따라가는 경향성을 통해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을 측정하였다. 회피 경향성은 실험 참가자가 실험협조자와 같은 답을 하면 2점(회피), 다른 답을 하면 1점을 부여해서 전체 반응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불확실성 회피의 합산 점수는 최대 20점이며, 회피하지 않는 실험참가자의 합산 점수는 최소 10점이다. 실험 참가자가 실험 협조자를 따라가는 반응 경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평균 2점에 가까울수록) 불확실성 회피경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 과

본 연구는 서울 소재 C 대학교 충청도 소재 N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를 통합시키기에 앞서 서울 소재 C대학교 충청도 소재 N 대

학의 실험 참가자들 간에 실험 장면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만일 차이가 난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실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대학별 특성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 또는 실험 환경 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치 3명을 제외한 두 대학 간의 실험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한 결과 $t=1.518$ 로서 두 대학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료통합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치 3명은 실험 상황에서 10문제를 다 풀어보지 못하고 게임 도중에 돈을 다 잃은 사람들이었다. 실험상황에서 불확실성 경향성의 측정은 총 10회기(10문제) 중에서 잘못 측정되어진 3회기를 제외하고 7회기만을 사용하였다. 결국된 3회기는 1, 7, 10번 문제였다. 이 3회기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문제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에 대한 몰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선택에서는 100%의 사람들이 다른 답을 선택하였다. 1번 문제의 경향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실험 참가자의 84.6%가 실험협조자와 다른 답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비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첫 번째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서 나머지 9문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연속적으로 제시되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의 1번 문제에 대한 편중된 반응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1번 문제에 있어 실험에 몰입되어있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번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7번 문제에서 찬스를 사용한 실험 참가자는 전체 55명의 실험 참가자 중에서 8명이었다. 찬스를 사용한 회기는 불확실성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실험 참가자의 반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이기 보다는 남아 있는 돈에 근거한 반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0원이 남은 실험 참가자들은 마지막 10번 문제에서는 거의 모두 다른 답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인	평균(Mean)	표준편차(SD)	사례수(N)
체면민감성	4.37	.78	52
사회적불안	4.89	.73	
자아존중감	3.37	1.05	
불확실성 회피	1.41	.20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하고 나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상관 행렬은 표 3과 같다.

표 3. 체면민감성, 사회적불안, 자아존중감, 불확실성 회피의 상관행렬

변 인	1	2	3	4
1. 불확실성 회피	-			
2. 체면민감성	.588***	-		
3. 사회적불안	.386**	.182	-	
4. 자아존중감	-.215	-.264**	-.502***	-

* $p<.05$, ** $p<.01$, *** $p<.001$

상관분석 결과 불확실성 회피와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체면민감성 $r=.588$, $p<.001$ 과 사회적 불안 $r=.386$, $p<.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창호(1993)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체면 민감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r=-.264$, $p<.01$ 보였고, 사회적 불안과 $r=-.502$, $p<.001$ 로서 강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불확실성 회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확실성 회피에 대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심리적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예측력과 설명력을 가지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영향

예언변인	β	t	R ²	.sig
체면민감성	.553	4.896**		.000
사회적불안	.335	2.660*	.433	.012
자아존중감	.099	.772		.444

* $p < .05$, ** $p < .01$

준거변인: 불확실성 회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산출되어진 부분들이 있어,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는 VIF값을 토대로 하였는데, 그 결과 VIF값이 1과 근접한 양상을 보여서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예측력 $R^2=43.3\%$ 이며, 이에 대한 F값은 12.206이고 $p < .01$ 이므로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적합한 예측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의 β 값을 비교해 보면 체면민감성(.553), 사회적 불안(.335), 자아존중감(.099)의 순으로 불확실성 회피를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민감성은 유의도(Sig T)가 .000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β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체면민감성이 높음에 따라서 불확실성 회피경향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불안은 β 값이 .335로 $p < .05$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불확실성 회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은 유의도(Sig-T)가 .444로 $p > .05$ 로 불확실성 회피를 예측함에 있어 회귀모형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체면민감성,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Hofstede(1980, 1995, 2005)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견해만으로 불확실성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추론하였다. 즉, Hofstede가 주장한 불확실성 회피 원인은 문화나 국가의 차이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명확한 설명들은 타문화의 오해나 편견조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 회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회피라는 차원이 문화를 대표하는 차원이 된 것 자체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불확실성 회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체면민감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문화가 관계주의 문화라는 점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보다는 타인 고려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이러한 판단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피경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회적 불안 역시 불확실성 회피를 일으키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회피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회피 경향성을 보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불안은 Hofstede(1980, 1995, 2005)가 주장한 불안과는 성격적으로 다르다. 즉, Hofstede(1980, 1995, 2005)는 불확실한 상황이 유발하는 불안인 반면, 본 연구에서의 불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장면에서 투자나 상품구매와 같은 일련의 선택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예측의 정보로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가령, 아침에 일기예보가 50%의 확률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 즉, 체면민감성과 사회적 불안의 정도로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어쨌든, 예측이 매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면민감성이나 사회적 불안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된 사회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더욱 유용하다. 체면민감성이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투자나 상품구매에 있어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특성들은 투자 상품 예치나 상품의 광고 장면 등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Hofstede(1995)가 주장한 불확실성 회피와 관련된 문화 간의 차이점이 체면민감성과 사회적 불안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불확실성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i-Ping등(198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Li-Ping등(1989)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과 똑같은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 능력, 좋은 자질 등을 강조했으며, 그들 자신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설정을 보였는데, 이는 실패했을 경우의 부적 피드백을 회피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설정을 하는 경향은 처음의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불확실성 회피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불확실성 상황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 버릴 수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 선택 이후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합리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불확실성 회피를 가중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체면민감성과 사회적 불안,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외에도 많은 심리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이 불확실성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 가령, 부모-자녀관계나 그 사람의 직업, 가치관 등도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좀 더 명확하게 불확실성 회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실험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문화의 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불확실성 회피로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해석상에 주의를 요한다. 실험실에서 이

루어진 불확실성 회피는 국가나 문화적인 차원의 불확실성 회피와는 사회 상황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험처치 면에서도 사회상황을 100%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찬스에 대한 처치는 확실한 상황에만 쓰이길 기대하였지만, 이러한 확실성과는 관련 없이 피험자의 특성상 ‘도’ 아니면 ‘도’식으로 찬스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찬스 사용 자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실험이 현실적인 특성들을 완벽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과 오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된 후속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오 (2002). 자아존중감, 체면민감성과 자기제시 전략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재 (1999).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동기와 자기제시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희 (1994). 한국가족의 문제에 대한 성 평등적 시각의 소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08-119.
- 김영세 (2002). 전략과 정보: 게임 이론적 접근. 서울: 박영사.
- 김재문 (2004). 프로그래머의 전략적 사고. 서울: 새로운 제안 출판사.
- 박기순 (1994). 유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고차: 모형 정립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제31호, 123-142.
- 심연수 (1998). 복지국가와 정의. 서울: 인간사랑 출판사.
- 양참상 (2002). 창의성 개발과 기업경영. 서울: 석정출판사.
- 임태섭 (1993). 한국적 인간관계의 커뮤니케이션적 토대: 체면, 정, 그리고 눈치. 한국언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임태섭 (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욕구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11, 18, 207-247.
- 정 옥,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 주진윤, 김정일 (2002). 가치 창출의 e마켓. 서울 : 부키출판사.
- 진승범 (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1999). 문화심리학 :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 심포지엄, 1-20.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의 내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발표 논문집, 559-577.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2), 137-157.
- 최창호 (1993).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 사전. 서울 : 어문각.
- 한미정 (2001).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은경 (2002).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준오 (2003). 한국인의 체면민감성과 신분-가문의식이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kin, R. M., Appelman, A. J., & Burger, J. M. (1980). Social Anxiety, Self-Presentation, and the Self-Serving Bias and i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3-35.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uss, A. (1995). *Personality, Temperament, Social Behaviour, and the Self*. Needham Heights, MA : Allyn & Bacon.
- Camacho, L. M., & Paulus, P. B. (1995). The Role of Social Anxiousness in Group Brainstorm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071-1080.
- Cast, A.,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 Freeman.
- Curran, J. P. (1977). Skills training as an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heterosexual-social anxiety. *Psychological Bulletin*, 89, 140-157.
- Dubois, D. L., & Flay, B. R. (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the Crocker and Park(2004)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 415-420.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Y. : Doubleday.
- Harter, S. (1993). Visions of self : Beyond the me in the mirror, in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40, Jacobs, J. E. ed.,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99-14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Companies.
- Hofsted, G., & Hofstede, G. J. (200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Companies.
- Kahneman, D., & Tversky. A. (1972). Subjective probability : A judgement of representativeness. *Cognitive Psychology*, 3, 430-454.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Beverly Hills : Sage.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 Beverly Hills, CA : Sage.
- Leary, M. R., Kowalski, R. M., & Campbell, C. 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 Anxiety :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308-321.
- Leary, M. R., & Kowalski, R. M.(1990). Impression Management :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34-47.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 Guilford Press.
- Li-Ping, T., & Baldwin, L. S. (1989). The effects of self-esteem, task label, and performance feedback on goal setting, certainty, and attribut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 Mooij, M. D., & Hofstede. G. (2002).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consumer behavior :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tailing", *Journal of retailing*, 78, 61-69.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vard University.
- Rhyne, L. C., Teagarden, M. B., & Panhuyzen, W. V. (2002). "Technology-based competitive strategies : The Relationship of cultural dimensions to new product innovation",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3(2), pp.249-27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 Y. : Basic Books.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Schlenker, B. R., & Leary, M.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 133-168.
- Sherif, M. (1935). A study of some factors in perception. *Archives of Psychology*, 27, 187.
- Vonk, R. (1999). Impression formation and impression management : Motives, traits, and likeability inferred from self-promoting and self-deprecating behavior. *Social Cognition*, 17(4), 390-412.

An Analysis of Influences of Chemyon(Social-Face)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Self-esteem on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Chung-won Lee Hyo-chang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verified psychological variables to have an effect on uncertainty avoidance focusing on Chemyon(Social face)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self-esteem, based on Hofstede's uncertainty avoidance. To inspect this study, first, by using a list of questions, measured them, which are Chemyon(Social face)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self-esteem. Second, by making uncertainty conditions experimentally, measured uncertainty avoid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in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 could catch the point that Chemyon(Social face)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are primary factors to expect uncertainty avoidance but self-esteem is not. These research results show current events. This study find more explicit psychological factors of Hofstede's uncertainty avoidance than before. Even though, Hofstede's study explained that the factors of uncertainty avoidance are caused by just influence on culture and anxiety, through this research found that Chemyon(Social face)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cause uncertainty avoidance as an important factor. Also, this study verified that prediction of the future on the uncertainty avoidance. In other hand, It is inspected through this study that self-esteem is not a factor of influencing on uncertainty avoidance.

Key Words : uncertainty avoidance, chemyon, social face, self-esteem, social anxiety, culture dimension

원고접수 : 2006년 6월 13일

심사통과 : 2006년 7월 13일